

홍천실버신문

건강한 노후 · 활기찬 노후 · 일하는 노후 · 행복한 노후

2021년 4월 (제83호)

발행처 홍천군노인복지관
발행인 자월스님
주소 강원도 홍천군·읍 태학여내길 80-3
전화 033-430-8700 FAX 033-430-8790
홈페이지 www.hcknowin.org/

홍천군노인복지관 소식

“무기력한 일상 털고 이웃과 함께해 행복해요”

홍천군노인복지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코로나블루 극복 소규모 자조모임 진행



◇홍천군노인복지관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일환으로 새싹보리 키우기 사업을 진행, 호평을 받고 있다.

날짜	수업내용	관찰내용	오늘 기분
12-15(목)	새싹보리 재배에 필요한 10종 재료 받았다		나름
12-16(금)	새싹보리 재배에 필요한 10종 재료 받았다		나름
12-17(토)	새싹보리 재배에 필요한 10종 재료 받았다		나름
12-18(일)	새싹보리 재배에 필요한 10종 재료 받았다		나름
12-19(월)	새싹보리 재배에 필요한 10종 재료 받았다		나름
12-20(화)	새싹보리 재배에 필요한 10종 재료 받았다		나름
12-21(수)	새싹보리 재배에 필요한 10종 재료 받았다		나름
12-22(목)	새싹보리 재배에 필요한 10종 재료 받았다		나름
12-23(금)	새싹보리 재배에 필요한 10종 재료 받았다		나름
12-24(토)	새싹보리 재배에 필요한 10종 재료 받았다		나름
12-25(일)	새싹보리 재배에 필요한 10종 재료 받았다		나름
12-26(월)	새싹보리 재배에 필요한 10종 재료 받았다		나름
12-27(화)	새싹보리 재배에 필요한 10종 재료 받았다		나름
12-28(수)	새싹보리 재배에 필요한 10종 재료 받았다		나름
12-29(목)	새싹보리 재배에 필요한 10종 재료 받았다		나름
12-30(금)	새싹보리 재배에 필요한 10종 재료 받았다		나름
12-31(토)	새싹보리 재배에 필요한 10종 재료 받았다		나름
2021년 1월 1일	새싹보리 재배에 필요한 10종 재료 받았다		나름
2021년 1월 2일	새싹보리 재배에 필요한 10종 재료 받았다		나름
2021년 1월 3일	새싹보리 재배에 필요한 10종 재료 받았다		나름
2021년 1월 4일	새싹보리 재배에 필요한 10종 재료 받았다		나름
2021년 1월 5일	새싹보리 재배에 필요한 10종 재료 받았다		나름
2021년 1월 6일	새싹보리 재배에 필요한 10종 재료 받았다		나름
2021년 1월 7일	새싹보리 재배에 필요한 10종 재료 받았다		나름
2021년 1월 8일	새싹보리 재배에 필요한 10종 재료 받았다		나름
2021년 1월 9일	새싹보리 재배에 필요한 10종 재료 받았다		나름
2021년 1월 10일	새싹보리 재배에 필요한 10종 재료 받았다		나름
2021년 1월 11일	새싹보리 재배에 필요한 10종 재료 받았다		나름
2021년 1월 12일	새싹보리 재배에 필요한 10종 재료 받았다		나름
2021년 1월 13일	새싹보리 재배에 필요한 10종 재료 받았다		나름

◇새싹 보리 관찰일지

홍천군노인복지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들은 코로나블루 극복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2020년 코로나블루 극복을 위해 어르신들에게 지급된 반려식물 새싹보리 키우기를 통해 관찰일지 기록하며 성취감과 행복감을 느끼셨다고 한다. 또한, 허OO 어르신은 직접 키운 새싹보리를 가지고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새싹보리 비빔밥을 만들어 먹고 싶다고 생활지원사에게 의사를 전달하여 자조모임을 진행하게 되었다. 함께 참여한 생활지원사는 “어르신이 새싹보리 드렸을 때 새싹 보리가 자라면서 이웃 대상자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고 이야기 하셔서, 주변에 친한 대상자들과 새싹보리비빔밥을 만들어 먹고 새싹보리도 나눠주는 어르신의 표정은 행복 그 자체였습니다.”라고 후기를 전했다.

또한, 각자의 집에 있는 재료(감자, 국수, 호박

등)를 하나씩 가지고 작은 방앗간을 운영하고 있는 대상자 가게로 모여, 비가 오거나 추운 겨울날 생각나는 칼국수를 같이 만들어 먹는 자조모임을 가지는 시간을 보냈다.

참여한 어르신은 “코로나로 인해 모여 식사하는 것에 대해 감사함을 느낀다. 집에만 있어서 무기력해졌는데 생활지원사가 함께 만들어 먹자는 제안에 흔쾌히 집에 있는 감자를 들고 나와서 같이 만드니 무기력함이 나아지는 거 같아 한 달에 한 번은 이렇게 모여서 먹고 담소를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다.

홍천군노인복지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서는 생활지원사와 함께하는 자조모임, 소규모 프로그램 등 코로나로 인한 우울감 등 해소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면서 다양한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다.

홍천실버신문

신규 기자 모집

활동내용 홍천 관내 소식 취재 / 원고 작성 / 교정회의 등

지원자격 60세 이상 / 홍천군민 / 컴퓨터 활용 가능자

신청문의 ☎ 033) 430-8700 / 8718

접수방법 유선 / 내방

건강한 노후 · 활기찬 노후 · 일하는 노후 · 행복한 노후
사회복지법인 월정사복지재단 홍천군노인복지관

CONTENTS



- 02 - 홍천교육복지네트워크 꿈이음
- 03 - 대한노인회 홍천군지회 동면분회
- 04 - 기자기고

- 05 - 자동차를 타고 날고 싶다
- 06 - 홍천군 합기도협회
- 07 - 우리마을

- 07 - 인생칼럼
- 08 - 건강정보
- 08 - 국민연금 Q&A



후원계좌 : 국민은행 313501-04-161305 농협 301-0084-3440-11 우체국 200238-01-006584

※보내주신 후원금(물품)은 기부금공제법 제 25조에 의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월정사복지재단
홍천군노인복지관

홍천교육복지네트워크 꿈이음을 찾아서

청소년 문제 해결 지역사회 건실한 일꾼 만든다

다양한 교육복지 문화 활동 전개 꿈과 재능 키워
생동감 넘치는 활동 통해 활력 넘치는 지역 형성



◇홍천교육복지네트워크 꿈이음이 주최한 게이트볼대회에 참가한 청소년들이 자리를 함께했다.

‘아동과 청소년에게 꿈과 사랑을! 지역에 희망과 활기를! 돌봄과 배움의 행복한 홍천!’이란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사단법인 홍천교육복지 네트워크 비영리 사단법인 꿈이음은 2019년 1월에 창립하였다. 사단법인 홍천교육네트워크 꿈이음 창립 선언문에 취지와 정신이 일목요연하게 나열되어 있어 소개해 본다.

사단법인 홍천교육네트워크 꿈이음 창립 선언문

우리 사회는 저출산, 고령화, 4차 산업사회의 도래 등 급변하고 있다. 이로 인한 인구 감소 불안과 세대 간, 사회계층 간 갈등과 불균형,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 정명 1,001년의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는 우리 홍천은 수려한 자연환경과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넓은 면적을 갖고 있지만, 초고령사회 및 사회경제적 극복 해결 과제를 갖고 있다.

- 중략 -

2015년부터 시대적, 지역적인 아동 청소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유관 기관이 함께 고민하고 협력하여 홍천교육복지네트워크 꿈이음을 구성하여 아동 청소년들이 꿈과 재능을 키우고 펼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복지 문화 활동을 진행하였다. 꿈이음의 사업의 확대와 전문성 및 효율적, 체계적 운영,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법안 설립에 뜻을 모은 우리 모두는 아동 청소년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 및 균형 있는 전인적 성장, 사랑, 정의 평화 민주시민 양성, 희망과 행복의 돌봄배움공동체 실현에 이바지하며, 아동 청소년은 물론 청년, 시민들을 위한 교육문화 복지 활동과 지역 특성 및 시

대 변화를 고려한 창의적이고 생동감 있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므로 홍천을 희망과 활력 넘치는 행복한 지역 공동체로 가꾸어나가는데 이바지하고자 한다.

다음은 박사랑 홍천교육네트워크 꿈이음 사무국장과의 일문일답이다.

- 안녕하세요? 창립 선언문에 상세히 취지와 정신이 나와 있는데 주로 사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일명 청바지(청소년을 바꾸는 지역의 줄임말) 사업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청소년이 지역 사회의 건실한 일꾼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사회참여단을 만들어 청소년들의 문제를 발굴해서 유튜브에 올리고 홍천 군청에 제안하고 의견을 제시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도 합니다.

청소년과 관련된 예산이 많지 않아 외부에서 가져온 자원을 학교나 센터에서 음악이나 요리 그리고 게이트볼 수업 등 작은 도서관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라는 책 읽기 독서 릴레이도 하고 있고, 청바지 꿈원정대 활동의 경우 연간 100만 원의 금액을 차등 지급으로 30개 동아리를 청바지와 함께 지원 사업을 합니다. 그런 기회로 인해 청소년들이 서로 알게 되고 유대를 갖게 됩니다. 홍천에 청년들이 많지 않아 문제의식을 느껴 청년들을 활성화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멘토링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생들이 본인의 재능을 전수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초등학교들에게 음악과 요리 그 외 여러 가지 재능기부를 하기도 합니다.

- 아동, 청소년을 위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기성세대와의 간극을 좁힐 수 있는 행사는 없는지요?

청소년들과 소통하고 싶어하는 어르신들과 함께 세대 간의 유대와 소통에 역점을 두며 장학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거리감을 좁히기 위해 어르신들과 청소년 함께 게이트볼 수업을 6년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세대 간의 격차를 줄일 게이트볼장이 많아 소통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3세대 게이트볼 대회도 있어 청소년들과 함께 나가 상을 타오기도 했으며 청소년들이 동네 어르신들과 친해질 수 있다는 좋은 점도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차원에서 학교나 환경 미화로 일하시는 어르신들이 강사로 일자리 창출이 되기도 합니다. 게이트볼 사업의 프로그램도 외부의 지원이 언젠가는 끊길 수 있어 우리 지역에서 지원을 받는 것이 안전하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 작년부터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사업에 차질과 고충이 많았으리라 믿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코로나19로 인해 작년에는 모든 사회가 멈췄어요. 계획을 바꿨어요. 청소년 3명 또는 5명 모여서 소규모로 행사를 진행했어요. 야외의 경우 10명 정도 수업이 가능했기에 그런대로 수업이 진행됐습니다.

올해는 게이트볼 관련해서 작년보다 접수가 더 늘었습니다. 방역을 철저히 하고 소규모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작년에도 어려움이 많았지만 와동에 3구장 연봉에 1구장 게이트볼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올해도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행사는 차질이 없으리라 믿습니다.

-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며 전인적인 인간으로의 성장을 돕는데 보람이 크시리라 믿습니다. 청소년들에게 하실 말씀은 없는지요?

저는 주체적으로 아이들이 자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방종이 아닌 자기 자신을 책임질 수 있는 청소년이었으면 합니다. 저 역시 서툰이 넘어가고 있는데 한 때는 남을 탓하고 책임을 사회에 전가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이 각성하고 책임지지 않는 한 발전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주체성을 가지려면 청소년 시기에 동아리 활동 등을 많이 해보고 많은 체험을 해보았으면 합니다.

꿈이음은 그런 역할을 도와주기 위해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현 기자(kjh8639@hanmail.net)



대한노인회 홍천군지회 동면분회

“900여명 회원 모두가 행복한 그날까지 최선”

분회장 재임으로 8년째 활동, 마지막 봉사 기회로 여기고 솔선수범

영하 8도의 기온에도 날씨가 쾌청하여 동면분회를 취재하기 위해 속초1리 경로당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벼웠다. 기쁜 마음으로 도착한 분회 사무실에서 원윤상 분회장, 허흥구 부회장, 최재언 사무장이 기사를 반갑게 맞이해 주었다. 분회사무실이 별도로 없어서 동면분회 부회장과 속초1리 노인회 회장직을 겸직하는 허흥구 부회장(1939년생)의 배려로 속초1리 경로당에서 대담을 하였는데, 분회 사무실을 빠른 시일 내 장만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대한노인회 홍천군지회 동면분회는 14개리에 노인 인구 약 1,400명중 900명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으며 노인일자리에 약 340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원윤상 분회장은 몇 대째 속초2리에 살고 있으며 노인회장, 마을이장, 새마을지도자, 동화중학교 동창회장과 홍천군 협의회 회장직을 8년간 수행한 바 있다. 6녀 2남의 다복한 자녀를 두고 있는데 큰아들은 속초2리에서 인삼, 과수농사를 하며 현재 속초2리 이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둘째 아들도 같은 동네에서 녹두삼계탕 전문점을 운영하고 있어 두 아들이 모두 곁에 있어 더 할 나위 없이 행복하다고 하였다. 원윤상 분회장(1940년생)은 4년의 1차 임기를 마치고 재선임되어 올해로 8년째 분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원윤상 분회장은 이번 재임을 마지막 봉사로 알고 임원진과 함께 솔선수범하는 활기찬 분회가 되도록 운영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임원진 다년간의 마을노인회장직 수행으로 경험 풍부

허흥구 부회장은 12년째 속초1리 노인회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동면 출신으로 젊은 시절 서울에서 생활하다가 1966년 귀향하여 농사를 전업으로 하며 사회활동에도 소홀하지 않았다. 속초1리 경로당을 신축하였지만 코로나19로 준공식 및 개관식을 갖지 못한 것을 못내 아쉬워하였다. 신축한 경로당은 어르신들이 앉았다 일어나기가 불편한 점을 감안해 입식으로 가구를 바꾸었으며 회의, 모임 등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12년간 속초1리 노인회장직을 수행하면서 가장 보람된 일로 3년여 동안 어르신들에게 한글 강좌를 개설하여 어르신들이 한글을 익혀 “영귀미 할매들이 걸어온 발자취”라는 책자를 만들어 배포한 일을 들었다. 또한 어르신들의 자작시에 봉사단의 도움을 받아 그림을 그리고 액자를 만들어 전시회를 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사무장은 전국 최초 스님 마을이장, 스님 노인회장 출신

최재언 동면지회 사무장은 11년 째 신봉리 노인회장직을 겸직하고 있으며, 현재 동봉사 주지 스님이라고 한다. 1970년 전국 최초 스님이장으로 한 때 유명세도 뒀다고 한다. 춘천이 고향으로 1965년에 홍천 신봉리로 이사를 왔다. 젊은 시절 우체국, 농협, 남수원골프장 등에 근무하였고 부서관으로 월남전에도 참가하여 화랑무공훈장을 받은 국가유공자라고 한다. 현재도 봉사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남수원골프장 재직 시 장안구에서 봉사활동을 한 것이 밑바탕이 되어 현재까지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동면분회 임원진(왼쪽부터 최재언 사무장, 원윤상 분회장, 허흥구 부회장)



◇항일 의병장 한갑복과 항일 의병 22인 추모비

노인일자리사업 340여명 참가 분회 사무실 조기 마련 계획

일제 강점기 만든 ‘동면’ 지명 ‘영귀미면’으로 개칭 앞장 서

전국 최초 ‘스님 이장’ 화제 인물 사무장 맡아 분회 발전 동분서주

매년 개최 야유회 코로나로 취소 빨리 일상회복 한자리 모였으면...

한다. 신봉리 노인회에서는 6년 전부터 약 10,000㎡의 밭에 왕대추를 심어 노인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으며 현재 약 3천여 만 원이 적립되어 있다. 노인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약 5,300㎡의 밭에 1모작으로 옥수수를 2모작으로 들깨를 심어 수확을 올리고 있다. 여기에 더해 올해는 노인일자리센터의 도움으로 약 1,800㎡의 부지에 콩을 심기로 했단다.

최사무장은 왕대추 강사로도 출강을 하고 있는데 생산된 왕대추 등을 팔기 위해 무궁화축제, 스님들의 행사에 참가해 판매를 하고 있다. 최사무장이 스님인 것도 특이하지만 자발적이고 생산적인 노인일자리 창출을 홍천 관내에서 가장 열성적으로 추진하는 노인회장인 것 같았다.

고유의 옛 이름 ‘영귀미면’으로 면이름 개칭 운동 전개

모이신 임원 3분들은 현재 면이름 되찾기 운동을 면차원에서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현재의 면 이름은 1917년 일제에 의해 영귀미면에서 동면으로 개칭되어 100년 이상을 일제가 만든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면이름 되찾기 서명운동, 간담회 등을 개최해 주민 60% 이상이 고유의 원래 이름인 “영귀미면(詠歸美面)”으로의 환원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자는 이번 기회에 홍천군 차원에서 특색이 없고 그저 방향을 가리키며 전국에 같은 이름이 많이 존재하는 남면 서면 등도 멋있고 특색 있는 고유의 원래 이름으로 환원하면 어떨까 하고 생각해본다.

원윤상 분회장은 작년에 동면분회 소속 노인회장 2분이 별세하였다는데 뭐니 뭐니 해도 어르신들의 건강이 최고인데 요즘은 코로나 사태로 우울한 나날을 보

내고 있다며 하루빨리 일상으로의 삶으로 회복되기를 바랐다. 코로나 사태로 경로당에서 식사제공을 제대로 못해 남은 쌀로 가래떡을 뽑아 어르신들의 손을 덜기 위해 아예 방앗간에서 떡을 썰어서 나눔 행사도 가졌다고 한다. 매년 임원진들이 분회장의 차량 도움과 여러 단체의 협찬으로 야유회를 가졌으며 코로나가 해결되어 행사를 진행할 수 있기를 바랐다. 애로사항으로 분회사무실이 협소하여 조금 더 확장되기를 소망하였다.

항일 의병장 한갑복과 항일 의병 22인 추모비

동면분회 임원들은 동면이 홍천 9경중 6경인 수타사(공작산)가 유명하지만 면사무소 인근에 원윤상 분회장의 부친 원세동이 주축이 된 지역유지들이 조성한 항일 의병장 한갑복과 항일 의병 22인의 추모비가 있다고 하여 답사해 보았다.

1905년 을사늑약으로 우리의 외교권을 강탈한 일본은 1907년 우리의 군대마저 강제로 해산시켰다. 이에 분개한 전국 각지의 우국청년들은 국권회복을 위해 정미의병으로 봉기하였다.

원주감영 진위대 정교였던 한갑복은 평소 알고 지내던 홍천 동면 덕우마을의 안응순을 찾아가 함께 의병을 조직하고 대장으로 추대되었다. 고문 안응순, 책사 이병두, 연락책 김춘선 등으로 구성된 의병부대는 수백 명의 군사로 홍천은 물론 지평, 원주, 횡성, 평창, 영월 등 영서지역과 멀리 강릉에까지 진출하여 왜병에게 치명타를 가하는 혁혁한 전공을 세웠다. 한갑복 의병장과 남은 군사들은 1907년 11월에 양덕원 전투와 대미산성 전투에 이어 11월 28일 동면 화방마을 가래골에서 숙영하던 중 왜병의 기습을 받아 22명의 대원들과 함께 치열한 접전 끝에 장렬하게 산화하였다. 이에 정부는 1991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지역주민 이제선의 증언을 토대로 원세동 등 지역유지들이 수십년 간 자료를 찾아 마침내 전적지와 유해를 확인하였으며, 고귀한 충의를 만대에 기려 교훈으로 삼고자 홍천군민의 뜻을 모아 여기 추모비를 세운다. ‘조국에 바친 그 뜨거운 충혼, 겨레의 가슴 영원히 빛날지니 장하신 그 이름, 영령들이여 편히 잠드소서.’

2011년 10월 18일 조성한 비문에 새겨진 글귀를 가슴에 되새기며 숙연해지는 것은 기자만은 아닐 것이다.

전소열 기자 (silverhong21@naver.com)

절망 속에서 피어난 한 떨기 꽃 ‘시’에서 희망을 만나다

재난으로 힘들어 하는 이 시기 한편의 시가 감동으로 다가온다

일 년 사계절이 한 바퀴 돌고 다시 꽃피는 봄이 왔지만, 우리는 여전히 마스크를 끼고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는 아픈 현실에 처해 있다. 코로나19로 모든 행사가 취소되고 취미 활동이나 자기 계발을 할 수 있는 문화센터 마저 문을 닫은 이때에 어른들은 뭘 하고 지내실까 궁금해진다.

TV앞에 앉으면 트로트를 비롯해 각 장르의 노래 경연과 대회에서 입상한 사람들의 토크나 장기 자랑으로 연일 프로그램이 이어지고 있다. 트로트를 별로 선호하지 않던 나 자신도 TV앞에 앉아 그들의 노래를 들으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던 때가 여러 번 있었다. 그들의 가정사와 연관지어 부르는 노랫말이 가슴에 닿아 더욱 진한 감동을 불러 일으키는 것이다. 그런 연유인지 몰라도 아픈 가정사가 있는 출연자들이 큰 상을 타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다. 아마도 국민 문자 투표에서 많은 점수를 얻어서 인듯하다.

개인의 가정사에 걸 맞는 노랫말에 재능까지 겸비한다면 그야말로 신데렐라로 변신하는 것은 시간문제이고 팬들의 호응도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이다. 그 만큼 우리는 스토리를 중시하는 민족인 것 같다.

누구나 공감하는 울림이 있는 시

한편의 시(詩)를 떠 올려 본다. 대중의 애창곡 중에는 감동적인 시에 곡을 붙여 만든 노래가 많다. 그만큼 시 속에는 인생과 사랑, 삶이 모두 들어 있어서이다. 우리네 굴곡진 인생사를 이야기 하자면 책으로 써도 몇 권이 될 텐데 짧은 시 한편 속에 우리 마음을 대변하는 공감의 울림을 주는 시가 있다.

김소월, 윤동주, 서정주에 이어 현존하는 시인으로서 정호승 시인의 시가 유독 노래로 많이 불려진다. 그의 대표작인 <수선화에게>라는 시는 안치환과 양희은 가수의 목소리로도 부르는 시노래이다. 문학인이라면 누구나 애송하고 있는 시라고 김우종문학상 평설에서도 선정 이유를 밝힌 힐링 낭송시 한 편을 읽어보자.

수선화에게

정 호 승

울지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공연히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

눈이 오면 눈길을 걸어가고

비가 오면 빗길을 걸어가라

갈대숲에서 가슴검은 도요새도 너를 보고 있다

가끔은 하느님도 외로워서 눈물을 흘리신다

새들이 나뭇가지에 앉아 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고

네가 물가에 앉아 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다

산 그림자도 외로워서 하루에 한 번씩 마을로 내려온다

종소리도 외로워서 울려퍼진다

슬픔의 눈물로 만든 진주

이 시에서 외로움은 자기만 소외되었다는 억울함의 감성적 표현이다. 그런데 산 그림자도 외롭고 도요새도 외롭고 하느님마저 외롭다면, 이미 자신만의 슬픔과 외로움에 갇힌 사람은 이로부터 탈출하게 된다. 나도 외롭고 너도 외롭고 조물주마저 외롭다는 말에 독자는 이미 자신을 위무하는 수단이 되는 것이다. 혼자가 아니니 외롭다고 말할 수가 없다.

<수선화에게>를 소리 내어 읽노라면, 이미 아팠던 마음은 치유가 되고 평온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깊은 슬픔과 좌절에 빠져 있

다가도, 신선한 바람과 밝은 햇살과 호수의 물결 속에서 새로운 희망을 발견할 수 있다.

노래와 시낭송의 차이

이처럼 노래와 시낭송은 노랫말(가사, 시)에 운율을 붙여 대중의 가슴으로 파고든다는 점에 있어 같은 맥락으로 볼 수가 있다. 그렇다면 차이점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기로 하자.

노래는 작사가와 작곡가, 그리고 가수가 있다. 반면에 시낭송은 시와 낭송가, 그리고 청중만이 있을 뿐이다.

시낭송이란, 시인의 영혼으로 빚어낸 최상의 언어인 시를 독자와 함께 느낌을 공유하기 위해 자신만의 리듬으로 읊는 소리예술이다. 이처럼 책속에 갇혀 있던 시에 날개를 달아 청중에게 감동을 전해주는 사람을 시낭송가라 한다.

요즘은 노래대회 만큼이나 시낭송대회도 전국적인 대세를 이루고 있다. 애송하는 시 한편 가슴에 담고 있으면 누구라도 낭송을 할 수 있으므로, 본인은 물론 청중에게 즐거움과 감흥을 줄 수 있어서이다.

한편의 시(詩)가 주는 행복

지금은 팬데믹으로 남녀노소 모두가 힘든 시기에 있다. 새벽에 기상해 자기계발을 하는 ‘미라클 모닝’에 열광하는 2030 세대가 점점 늘고 있다고 한다. 자신과 약속된 시간에 일어나, 하고자 했던 일을 하나씩 성취해 가면서 자존감과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긍정적으로 판단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고 한다. 어쩌면 코로나19가 낳은 우울과 절망의 시대에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는 위기감의 자구책으로 청년들을 미라클 모닝으로 이끌어 가는 것이 아닐까 하여 안쓰러운 생각마저 든다.

재난으로 모두가 힘들어하는 이 시기에 영혼을 울리는 한편의 시가 감동의 소리로 전해질 때 우리의 가슴은 파스해지고, 닫힌 마음이 열리고, 답답하고 아파하던 마음이 치유되기도 할 것 같다. 시(詩)는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키며 사랑하는 마음과 삶의 여유를 갖게 하는 힘이 있다.

한편의 시를 마음으로 듣고 노래처럼 소리 내어 읊어보며, 마음속 어디쯤 희망의 시(詩) 한편 적어두는 것은 어떨까.

조하경 기자(jok9621@daum.net)

자동차를 타고 날고 싶다

공상과학영화 같은 이야기 첨단기술과 만나 현실화

‘하늘을 나는 자동차’ 개발 속속 착수 실현 눈앞
6G 통신망 시스템, 경제성 등 해결 과제도 많아

공상과학영화를 보면 씩씩 달리던 자동차가 이륙하여 비행기가 된다. 복잡한 도심 상공을 여러 형태의 비행물체가 날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정해진 도로, 차안에서 앞으로도 뒤로도 나아갈 수 없고 목적지까지 갈 시간은 촉박하다. 혹은 자동차를 몰고 가다 높이 떠서 아래를 조망하고 싶을 때도 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늘을 나는 자동차를 꿈꾸지 않을까. 그런데 날아다니는 자동차가 꿈이 아닌 가까이 와 있는 현실이 되었다. 나는 자동차의 이모저모를 살펴보자.

전기 항공 개발사 ‘Archer’의 꿈

‘Archer’사는 LA 시와 파트너십을 맺어 ‘Flying Car Project’를 추진 중이다. 2024년에 LA 지역에 도심 항공 교통망을 창설하여 도심 교통 체증이 심하기로 유명한 이 도시에 최적화된 교통 흐름 시스템을 구현하기로 계획하고 있어 전문가들도 아주 이상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는 사람들이 이동하기가 아주 불편하고 대중교통 시스템이 상당히 낙후되어 있어 나는 자동차 프로젝트는 회사로서도 LA 시로서도 서로 원하는 바이고 그 실현은 가속화될 전망이다.

나는 자동차의 진화 과정

나는 자동차는 의외로 역사가 오래되었다. 그 시 작은 근 10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처음 글

랜 커티스(Glean Curtiss)가 만든 자동차는 대형이고 날개가 3개 달렸으며, 도로에서 달리다 날 수 있었다. 라이트 형제의 라이벌이기도 했다. 1926년에는 헨리 포드가 1인용 비행 자동차를 만들었으나 수익성이 낮아 사업을 접었다. 1937년에는 에어로빌 회사가 시속 180km로 나는 자동차를 개발하기도 했다.

1950년대에 포드자동차는 다시 나는 자동차의 타당성을 조사하고 경제성이 있다는 판단하에 의료 서비스 용도로 비행자동차를 생산하기 시작했다. 2009년 EAA 에어벤처사가 나는 자동차 ‘Parajet Skycar’를 만들었는데 이는 시속 130km, 최대 속력은 290km에 이르렀고 런던에서 팀부크까지 날아가는데 성공하였다.

테라푸지아(Terrafugia) 자동차 회사가 만든 비행자동차는 도로에서 자동차로 달리다 수직상승해 날 수 있다. 날개를 접는데도 30초밖에 안 걸린다.

사실 이런 저런 이유로 비행자동차의 발전이 느리긴 했지만 오래전부터 시도해왔고 나날이 발전해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제 복잡한 도시의 도로 여건상 비행 자동차의 발전은 가속화되고 있는 중이다.

나는 자동차는 어떤 모습일까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것은 헬리콥터형 플라잉 카가 될 것이다. 이 자동차는 평소 3개의 바퀴를

이용해 지상을 주행하다가 날개를 펼쳐 헬리콥터처럼 하늘을 날 수 있다. 지상에서는 시속 160km, 하늘에서는 180km로 이동하며 차량 무게 680kg으로 경량이다. 단 이륙하기 위해 일정 정도의 주행거리가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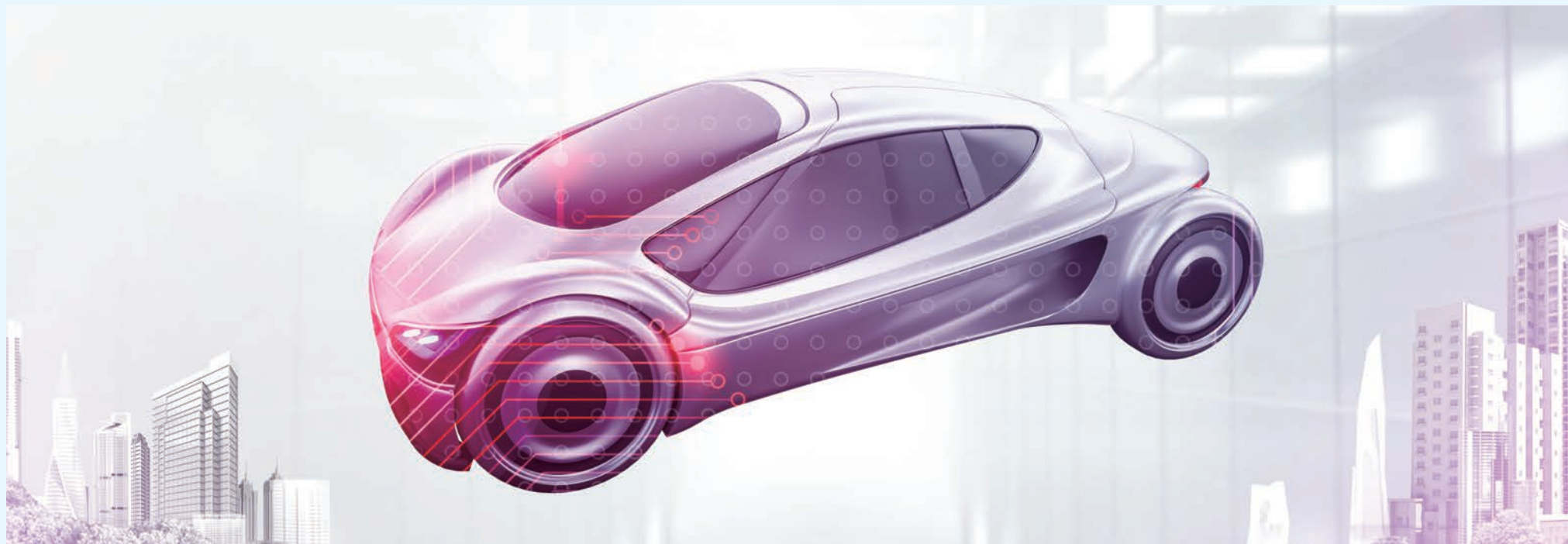
에어로 모빌은 비행기와 유사하다, 도로를 달린다 일정 활주로가 있으면 날개를 펼쳐 이륙한다. 탑승 인원은 2명이고 날개 펴는 시간은 3분 정도이며 지상에서 시속 160km 하늘에서 200km로 날 수 있다.

테라푸지아사에서 개발한 비행자동차 TF-X는 우리가 상상하는 비행자동차와 흡사하다. 접이식 날개가 있고, 수직이착륙이 가능하여 별도의 활주로가 필요 없다. 비행 시 최고 속도가 시속 320km에 달하며 비행기처럼 자동비행 소프트웨어가 적용되어 원하는 장소를 입력하면 목적지까지 이동이 가능하다. 특히 5시간 정도면 TF-X의 운전법(조종법)을 배울 수 있다고 하니 꿈의 플라잉 카라고 할 수 있다.

비행자동차, 플라잉 카는 인류가 꿈꿔왔던 매력의 자동차다. 현재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전기자동차, 자율자동차처럼 플라잉 카도 대중화가 가능할지 여부는 알 수 없다. 플라잉 카도 자율주행 자동차처럼 단지 자동차를 만드는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5G를 넘어 6G 통신망 시스템의 구축, 반도체 회사와의 협업 문제, 대중적 소비가 충족될 정도의 경제성 등이 풀어야 할 과제이며, 안전하고도 경량화된 차체의 개발도 지속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과제이다.

참고: RadioKorea 뉴스(2021.2.27.)

김민호 기자(minho215@hanmail.net)



홍천군 합기도협회

도연합회장기 12차례 종합 우승 차지 도내 최강자



◇홍천에서 합기도장 첫 개관은 1999년이다. 이후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사진은 홍천에서 활동중인 합기도 지도자와(사진 왼쪽) 합기도대회에 참가한 어린 이들.

2016년 체육회 정회원종목단체 승인 받아 발전 자율방범대, 수난구조대 등 자원봉사 활동 활발

홍천군 합기도협회의 창단과 발전

1999년 홍천군에 합기도장이 처음 개관한 후 홍천군의 합기도 꿈나무 육성과 군민건강 증진에 힘쓰고 있다. 또한 강원도 합기도 대표선수 최다 배출 및 전국 제패로 홍천군 위상 고취에 기여하고 있다.

홍천군 합기도협회는 초창기 홍천군 생활체육 협회로부터 2001년 정회원단체 승인을 받았으며, 양인석 초대회장을 필두로 군민들의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힘써 왔다. 이후 이원일(2대회장)과 김완섭(3대, 4대회장)에 이르게 되었고 2016년 비로소 홍천군 합기도협회가 체육회로부터 정회원종목단체로 승인 받아 김완섭 초대회장을 필두로 새롭게 출발하였다. 현재 배세진(2대 연합회장)이 홍천군 합기도 협회를 이끌어 가고 있다.

합기도는 치기, 차기, 꺾기, 던지기 등의 수련법을 활용한 겨누기 경기와 술기경기, 낙법경기, 발차기경기 등으로 구분하고 있고 경기화된 전통

무예 스포츠로서 홍천군 합기도 협회는 도연합회장기 대회에 총 17회에 모두 참가하여 12회를 종합우승을 하는 등 도내 최강의 위치에 있다. 또한 전국 대회에서 강원도 대표선수로 빠짐없이 참가하여 강원도의 위상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다. 지도자 발굴과 심판위원 배출에도 힘써 전국합기도연맹체 산하 전문 심판원 40명중 3명이 홍천군에서 배출되는 등 명실상부한 전국대표 협회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합기도 우수지도자 양성과 심판진 발굴과 더불어 어린이 안전교육에도 힘을 쓰고 있다. 또한 대한체육회 정회원 종목단체인 대한민국 합기도 총협회에 경기위원1명(지명훈)과 전문 심판위원 2명(정웅운, 신미연)을 배출하여 중앙 단체에서도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 지명훈 전무이사는 강원도



◇배세진 홍천군 합기도협회장

합기도협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강원도 합기도의 발전에 기여 하고 있다. 또한 합기도인 양성을 위해 모든 합기도 도장이 어린이 보호차량을 갖추고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홍천군 합기도 지도자들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각 봉사단체에서도 열심이다. 특히 라이온스클럽, 로타리클럽, 자율방범대, 수난구조대, 다문화후원회, 범사랑 홍천군지회, 그랑그럭회 등 다양한 봉사단체에서 활발하게 활동 하고 있다. 홍천군 합기도협회는 빠른 시일 내 시범단 창단을 바라고 있다. 개최하는 각종 행사에서 합기도 공연을 통해 지역사회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고자 하는 등의 노력을 이어가고 있으나, 시범단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홍천군과 체육회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이다.

홍천군 합기도협회 소속 도장

1. 정무관합기도
2. 겸선합기도도장
3. N합기도

안태수 기자(taesu9110@naver.com)



우리 마을

홍천군

전국 기초지자체 중 가장 면적이 넓은 행복 도시

각종 농산물 재배 최적 '홍천 명품' 인기 상한가 사통팔달 교통 요지로 수도권 충청·경상권 연결

홍천군은 1,917,50km² 면적으로 전국 기초 지자체 중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며 넓은 면적만큼이나 홍천 명품(한우, 잣, 찰옥수수, 수라쌀, 6년근 인삼)을 비롯한 다양한 농산물이 재배되고 있다. 강원 최대의 친환경 및 원예 농산물의 주산지이고 최근 사과, 오미자, 산마늘, 구기자 등 새로운 기후 및 환경에 맞는 작목으로 연구 실험하여 재배하고 있다.

홍천으로 귀농 귀촌한 인구는 2019년 기준으로 163명이 귀농하였고 2,182명이 귀촌하였다. 꾸준히 귀농 귀촌 인구가 늘고 있는데 용문~홍천까지 철도망이 구축되면 더 많은 인구가 귀농, 귀촌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홍천군은 강원인력 개발원은 중화향채 면역 치료제 개발 센터 및 연구시설을 갖춰지고 북방 농단에 관련 의약품 제조업체 등이 들어서 연계산업단

지로 구축하고 있다. 군은 16억1천만 원을 들여 강원인력개발원을 인수하여 신바이오 기업 유치에 나서고 있다.

홍천군농업기술센터는 귀농 귀촌을 도와드리기 위해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하고 있다. 또한 현장 밀착형 농기계 사업으로 동부지소, 서부지소, 남부지소 농기계 사업장 3개소 운영과 49종 373대의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고, 농업인에게 임대하여 대형농기계 현장배송은 서비스로 영농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벼 수확 등 농작업을 배양하고 고장난 농기계 수리 불편을 해소하며 농업인의 적기 영농을 지원하고 있다.

홍천군은 강원 영서 내륙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 수도권과 동서고속도로 1시간대 44국도로 1시간 30분 걸린다. 홍천군은 중앙고속도로 양양 고속도로 5번 국도로 강원 남부 및 충청, 경상권과 연결로

이며 31번, 56번 국도로 강원 영동 및 북부와 연결되는 사통팔달의 요지로 수도권과의 접근성 등을 고려할 때 귀농 귀촌의 최적지이다.

홍천군 9경중 1경은 8개의 임봉과 홍천강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명산 팔봉산, 2경은 석간수가 샘솟는 신비한 암봉 가리산, 3경은 원시림의 봉천수 400리 홍천강에 발원지 미악골, 4경은 홍천강 최고의 태극문양 전망대 금학산, 5경은 천혜의 자연 속에서 때 묻지 않은 비경 가령폭포, 6경은 역사의 숨결이 살아 숨쉬는 문화유적지 공작산 수타사, 7경은 4계의 신비와 절경의 명승지 용소계곡, 8경은 기암석의 비경과 천연기념물의 서식지 살둔계곡, 9경은 태고의 신비한 약물 가칠봉 삼봉약수가 있다.

홍천군은 쫄쫄축제, 산나물축제, 찰옥수수축제, 홍천강 별빛 음악 맥주 축제, 사과축제, 인삼한우명품축제 등 다양한 즐길 거리가 많아 전국에서 제일가는 힐링 명소로 알려져 많은 발걸음이 이어지기를 바란다.

이광명 기자
(shout1700@hanmail.net)



인생칼럼



석도익
소설가

유년시절 난생처음 버스를 타고 외갓집 가는 길, 비포장 울퉁불퉁한 신작로 길을 뚫은 먼지를 일으키며 달리는 버스도 흔들리고, 어린 내 가슴도 마음이 설레고 나도 흔들리는데, 차창 밖으로는 미루나무가 자꾸 뒤쪽으로 달아나는 것을 많이 보았다.

신작로 양쪽에 나란히 서 있는 미루나무는 멀리서 보면 찌리 빗자루 세워 놓은 듯하고, 어찌 보면 미군들이 행군하는 듯했다. 결코 예쁘거나 멋있지도 않고, 그저 키만 멀쑥하게 뻗어 올라가는 미루나무는 미국에서 온 버드나무라고 해서 미류(美柳)나무라고도 했다.

미루나무는 대한제국 개화기(開化

期)초기에 미국에서 수입하여 심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아름다운 버드나무란 뜻으로 '미류(美柳)나무'라고 부르던 것이 국어 맞춤법 표기에 맞추어, 어느 날 '미루나무'가 되었다고 한다.

지금의 가로수는 은행나무나 벚나무 등 아름다운 것과는 달리 처음으로 신작로에는 키다리 미루나무들이 주를 이루었다.

생장이 빠르고 이식이 잘되기 때문에 가로수로 많이 심었으나, 삶의 질

이 서있던 추억에 그늘이 되어주던 미루나무는 볼 수가 없다. 다만 그 미루나무 그늘에 낙엽같이 쌓여 있던 색 바랜 이야기만 짝하게 깔려 있을 뿐이다.

1923년 서대문형무소 건립 당시 미루나무가 심어졌다. 사형장으로 가는 길목에 하나 있었는데, 사형장으로 끌려가던 독립지사들이 독립을 보지 못하고 생을 마감해야 하는 애통함을 미루나무 앞에서 통곡하며 토해냈다고 하며,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통곡

殘)에 6·25를 휴전으로 멈추게 하고, 그 전선에 휴전선을 그어놓고 대치해 온 세월, 휴전선을 감시하는 남북공동경비구역인 판문점에서 일어난 미루나무 도끼만행사건으로 일촉즉발의 전쟁발발에 위기를 맞은 적도 있다.

1976년으로 역사의 수레바퀴를 되돌려 보면 아슬아슬한 순간이었다. 광복절이 며칠 지난 8월 18일, 공동경비구역 내 연합군 초소 부근에서 미군과 한국군은 미루나무 가지치기를 하고 있었다. 그때 감독하고 있던 미군 장교 두 명이 북한군 50~60명에게 도끼로 무참하게 살해당한 사건이 벌어졌다. 세계의 눈은 모두 이 미루나무에 모아졌으며, 군에서는 데프콘 3(준전시태세)를 발령했다. 전 국민은 그 끔찍함과 전쟁의 공포와 적들의 악랄한 행동에 치를 떨었던 기억이 있을 것이다.

2000년 가을에 개봉한 영화 <공동경비구역 JSA>는 당시의 남북화해 무드를 타고 '대박'을 터뜨린 영화로 유명하다. 민족의 비극이 응어리져 있는 판문점, 미루나무가 지구상에 나타나고 나서, 전 세계에 그 어떤 나무도 이만큼 집중조명을 받은 일은 전에는 물론 앞으로도 두고두고 없을 것이다.

미루나무 그 그늘아래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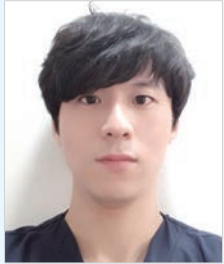
이 높아지고 아름다움을 추구하게 되는 현대에 와서는, 가로수도 여러 종으로 대체되기 시작되었는데 미루나무에 이어서 미루나무와 양버들의 교잡종인, 이탈리아포플러가 장려되어 생장이 느린 미루나무를 대체하기 시작하였다. 마침 미루나무는 재질이 연하고 깨끗하여 나무젓가락이나 도시락 성냥개비 등으로 수요가 급증하므로, 도벌이 성행해서 급속히 없어져 갔다.

지금은 도로의 가로수는, 도열하듯

의 미루나무라고 한다.

사형장 안쪽에 같이 심겨진 미루나무 또 한 그루가 있는데, 그 미루나무는 잘 자라지 못했다고 한다. 그래서 미루나무에 죽은 독립투사들의 한이 서려 나무가 잘 자라지 못했다는 말이 전해지기도 한다. 이후 사형장 내부에 있던 미루나무는, 2017년 8월 15일에 쓰러졌다고 하며, 앞에 남아 있던 통곡의 미루나무도 2020년에 독립투사들의 통탄을 안고 고사했다고 한다. 또한 민족상잔(民族相

건강정보

**김 홍 일**

삼성마취통증의학과의원 과장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 작은 잔기침 하나만으로도 주위의 눈총을 받거나 위축이 되는 시대입니다. 날씨가 점점 포근해지고 있지만 큰 일교차와 다시 높아지는 미세먼지의 농도로 인해 아무리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더라도 목이 불편한 경우가 많은데 아마 대부분 공감하실 상황이실 거라 생각합니다.

‘만성 기관지염’은 폐 질환의 한 종류로 염증으로 발생하는 호흡기 질환인데, 공기가 안 좋아지는 이유 때문인지 점점 환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통 가래를 동반하는 기침이 1년에 3개월 이상, 2년에 걸쳐 발생할 때 만성 기관지염이라고 하며 담배, 먼지나 공해, 자극적인 가



스에 장기간 반복적으로 노출된 경우에 만성 기관지염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만성 기관지염’의 가장 흔한 원인은 흡연이지만 기관지염이 있는 모든 사람이 흡연자인 것은 아닙니다. 흡연 이외의 원인으로는 대기오염 및 미세먼지, 유전적인 요인, 급성 기관지염의 반복과 호흡기 질환, 살충제의 흡입 등의 이유가 있으며

천식이나 알러지가 있는 사람의 경우 ‘만성 기관지염’의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기관지염의 증상 및 징후에는 ① 점액이 생성되는 지속적인 기침. ② 쌉쌉거림 ③편도의 부음 ④호흡이 힘들 ⑤두통 등이 있습니다.

보통 치료방법으로 환자에게 휴식을 취하게 하고 물을 자주 많이 마시고 이부프로펜 같은 약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약을 복용하면 기침과 동반되는 통증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때 시간이 지나면 급성 기관지염은 치료 없이도 사라지지만 만성 기관지염은 증상이 잠시 개선될 수 있지만 담배연기나 미세먼지 같은 요인으로 다시 악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만성 기관지염의 완화와 개선을 위해서는 어떤 방법들이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좋은 예방법은 흡연을 피하는 것입니다. 담배연기를 피하는 것만으로도 가장 큰 예방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미세먼지를 피하기 위해 마스크를 철저히 착용함으로써 코로나 예방과 호흡기를 보호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외로는 물을 자주 마시기, 가슴기를 이용하여 습도를 조절하고 항염증제 및 스테로이드제로 조직손상을 유발하는 염증을 줄이는 방법이 있는데 주로 네블라이저라는 가정용 의료 장비를 이용하는 것이 최근에 가장 효과적인 치료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Q&A / 국민연금공단 흥천지사

국민연금 제도란 무엇이며 왜 필요한가요?

- 국민연금은 노후 소득보장 위해 국가가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과 더불어 국가 사회안전망 역할

국민연금은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이란 소득이 있을 때 매월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했다가 나이가 들어 생업에 종사할 수 없어졌을 때,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하였을 때 매월 연금을 지급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소득보장제도입니다.

생활수준의 향상과 의학기술의 발달로 평균수명은 늘어나는 반면, 출산율은 감소하고 노인인구 비율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노후를 준비할 여유가 있는 분은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대부분의 노인이 노후빈곤층으로 전락하여 어려운 노후를 보낼 수 있기에,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국가에서 실시하는 것이 바로 국민연금제도입니다.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제도는 1889년 독일에서 최초로 시작되었고 현재 170여개 국가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8년 1월 1일, 근로자 10인 이상 근무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작되었으며 이후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1999년 4월 1일에는 전 국민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으며,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산재보험과 더불어 국가의 기본적인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홈페이지(<http://www.nps.or.kr>) 연금정보의 “알기 쉬운 국민연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